

바르셀로나, 도시환경을 고려한 신규 주유소 개설 규정 승인

https://ajuntament.barcelona.cat/bombers/en/noticia/petrol-stations-to-be-reorganised-to-improve-wellbeing-among-local-residents_653043

https://ajuntament.barcelona.cat/bombers/en/noticia/approval-for-new-regulations-on-the-opening-of-new-petrol-stations_805647

바르셀로나 시정부위원회는 소음과 매연 등으로부터 공기의 질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주유소 개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승인하였다.

현재 바르셀로나에 설치된 주유소는 105개로,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최대 1km가량 떨어져 있다. 기존 규정이 산업지역과 동일한 조건을 따른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주거지역·학교·의료센터 등 주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주유소 개설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순환도로 주변

· 일반 도로의 경우, 순환도로로부터 최대 250m 거리

· 항구 지역

· 산업 지역

· 프랑카 영역(Zona Franca) 베르네다(La Verneda) 토렌트 데 라델라(Torrent de l'Estadella) 본 파스톨(Bon Pastor) 지역 포함

주유소는 유치원·학교·의료센터 등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로부터 100m 떨어져 있어야 하며, 콜세롤라(Collserola) 공원과 몬주익(Montjuïc) 공원 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등재된 유산으로서 보호받는 대지 혹은 그 주변 지역까지도 주유소를 개설할 수 없다.

또한 건축 및 조경 설계의 측면에서 통합적 디자인이 요구된다.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표지판·홍보물을 사용하여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유소의 면적은 3,000m²를 초과할 수 없고, 높이는 2층(혹은 9m) 이상일 수 없다. 주유소의 일부 공간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주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상품에 한하여 100m² 이내의 공간을 할애할 수 있으나 식당과 술집은 제한된다.

한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바르셀로나 내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